

사회복지사의 “가족” 담론 연구*

김 인 숙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족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담론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담론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담론과 실천의 연관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 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결과 가족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족담론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공간은 안식처와 피난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성별분업 담론은 다소 의식과 실천상에 간극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별분업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에 적용하는 경향이었다. 셋째, 전형적 가족 이미지는 구조상의 전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있었으나 기능상의 전형성은 성별분업과 모성신화의 이미지에 기울어져 있어 절반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사회복지사들은 가족 유대의 질에 대해 자연적 제도이자 정서적 유대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담론이 실천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만을 적용한다는 이미지에서 담론적 혹은 해석적 실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주제어: 담론, 가족담론, 가족실천, 사회복지실천

1. 문제제기

사회복지실천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에 의해 조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astrow, 1992: 8). 즉, 사회복지사는 핵심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도구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로 인식된다. 여기서 과학적 지식은 가치나 이해관계, 편견이 배제된 객관성을 견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실

*이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천이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한다고 얘기되는 것은(Schon, 1983) 바로 이러한 바탕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합리적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국면에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담지자로서의 사회복지전문직에 이견을 가진 연구자들(Goldstein, 1990; Heineman, 1981; Imre, 1982; Saleebey, 1979)도 많다. 이들은 세계는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사회계급, 문화적 뿌리, 성격, 성을 초월하여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구축이나 활용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aleebey, 2001). 이러한 주장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여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맞닿아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자원체계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정치·문화적 배경과 그로부터 형성된 가치와 신념 및 사고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Greene, Jensen and Jones, 1996).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이며, 사회복지사 자신의 현실 인식의 틀이 어떤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환경의 자원체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실천을 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은 바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수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을 조정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현실 인식의 틀이 사회복지실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의 현실 인식의 틀 특히, 그가 가진 담론에 영향받으며 그것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현실 인식의 틀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담론”을 설정하였다. 담론은 단순한 언어적 반영물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하며 재해석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힘이다. 담론은 또한 현실을 당연시되는 세계로 수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박해광, 1999). 담론을 연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담론과 그 담론의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이 어떻게 비담론적 체계와 연결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강명구·박상훈, 1997). 즉, 담론이 특정한 비담론적 제도와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관한 것 이른바, “담론적 실천”의 양상과 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다. “담론적 실천”은 담론이 담론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실천과 같은 비담론적 형태로 형상화됨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가진 현실 인식의 틀 즉, 그들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가진 담론들은 그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의 실천 방향을 유도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담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 규범으로 변형시키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담론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담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족중심 실천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가족중심실천은 부모를 비

롯한 가족원들을 원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족을 임파워시키는 것으로서(McWilliam, Tocci, and Harbin, 1998), 모든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며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족 실천과 관련해 갖는 가족 담론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담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가족중심실천에의 함의와 딜레마를 생각해 보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실천 혹은 가족복지실천이 중립적인 문제해결과정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 혹은 해석적 실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쉬운 점은 담론과 그 담론의 실천적 전환이 함께 파악되어야 “담론적 실천”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가족중심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담론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을 뿐, 그러한 담론이 어떻게 실천적 규범으로 전환되고 변형되는지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언급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문헌 고찰

1) 담론과 실천의 관계

담론(discourse)¹⁾은 사회과학에서 언어와 상징에 대한 관심이 수렴된 지점이다. 그러나 담론은 단순히 언어적 질서를 따르는 기호체계가 아니다. 담론은 사회적 의미(meaning)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담론이 단순한 언어적 기호가 아닌 사회적 의미의 출처라는 것은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복잡한 의미의 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화의 원리가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작동됨을 말한다. 따라서, 언어에 부과되는 사회적 의미와 제약은 담론 형태를 통해 사회적 힘으로 전화한다. 담론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힘은 배제의 방식이나 설득적 수사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된다(박해광, 1999).

이처럼 담론은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그 자체로 간주될 만큼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그리고 이것은 담론의 실천적 즉, ‘담론적 실천’이라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현상은 일련의 제도적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의미화의 과정 즉, 담론적 실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오던 현상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 보는 효과를 가진

1) 담론은 담화, 언설, 지식의 흐름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담론은 언어와 더불어 언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일컫기도 하고 모든 형태와 범주의 문화적 활동 및 이런 활동에 대한 비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문화적 실천의 기본을 가리키기도 한다. 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1) 담론은 생산된다 2) 담론은 물질성을 지닌다. 3) 담론은 그 자체의 효과와 힘을 지니고 있다. 4) 담론은 어떤 실천을 지향한다. 5) 그러한 담론적 실천은 규칙성을 갖거나 혹은 제도화되어 있다. 6) 담론은 보편적이기보다는 지역적이며 동시대적인 일반성의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다. 7) 담론은 선택과 배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8) 담론적 실천은 항상 특정 시기와 특정 사회, 경제, 지리, 언어적 공간 안에서 결정되는 의명적이고 역사적인 법칙의 집체이다(장석만, 1990:209-213).

다. 후기구조주의 흐름에 속한 심리학, 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나온 연구들은 어떻게 특정 제도나 실천 행위 심지어 인간의 주체까지도 일련의 담론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Hollway는 성행위 과정에서 피임을 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경쟁적인 몇 개의 담론들 즉, 남성의 성욕이라는 담론, 전통적인 기독교적 담론, 페미니즘 담론으로부터 구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ryman and Burgess, 1994). 그리고 가족치료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은 가족치료실천가의 담론이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에서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Hare-Mustin, 1994; Benjamin, 1998), 건강보호의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실천으로 조형되어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Ruef, 1998)도 담론이 어떻게 제도나 실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Scott(1989)는 “의미구성과 사회복지실천”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의미의 구성을 주장하였고, 이어 Saleebey(1994)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체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의미체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화 혹은 담론들을 의미한다. 그 외에 Pozatek(1994)과 Green, Jenson과 Jones(1996)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가진 확고한 전문가적 입장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은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사회복지실천을 재규정하였다(Chambon, Irving, and Epstein, 1999).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실천이 과학에 대한 신념과 타인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전문적 지식으로 움직여진다는 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Leonard(1996)의 지적은 사회복지실천이 의미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천가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담론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의 원조 행위의 상당 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고 언어행위 자체가 원조가 되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담론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 행위를 재규정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가족담론의 양상

가족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으로 변해 왔는데, 이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담론 차이를 통해 구분 가능하다. 근대 이전에는 오늘날 중시되는 가족내 애정이나 심성적 애착보다는 혈연적 유대와 가족내 복종과 의무가 보편적이었고 결혼관계도 정서적 관계가 아닌 경제적, 생산적, 재생산적 관계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의 시장 자본주의의 부상은 가족의 이미지와 해석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가족에 일어났던 변화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 가족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사적 이미지’와 가족에 대한 “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ubrium and Holstein, 1990).

가족의 ‘사적 이미지’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일터와 가정은 서로 분리된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

게 급속히 확산되었다(Zaresky, 1986). 즉, 인간이 살아가는 양대 영역인 가정과 일터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영역으로 이분화되면서 가족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을 신성화시키고 가족의 이미지를 “평화” “안식처” “친밀함”으로 이미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조주은, 2004:7-8), 가족을 현실세계의 도피처가 되게 하였다.

가족의 사적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과 신비화를 가져왔다. 가족내 성별 분업과 모성신화 그리고 가정중심성(domesticity)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가정중심성은 가정과 일터의 공사분리가 성별분리로 이어져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이라는 적절한 위치가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가족은 남성에게 휴식처가 여성에게는 모성과 여성성이 구현되는 장이 되게 하였다(Higommet, 1993, 조주은, 2004:66에서 재인용). 우리에게 익숙한 모성에 대한 신화와 “안식처”, 내면세계 구축의 유일한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신비화 등은 모두가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의 공고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를 공고화했고 그 결과 가족은 외부세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를 가진 초인격적 존재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담론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Gubrium과 Holstein(1990)으로 대표되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가족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는 가족을 특정의 것으로 고착시키고 현실에서의 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양로원과 병원, 재활치료센터, 법정 등에서의 가족 담론 조사를 통해 가족은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구성, 해체되고 변모해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가족은 성적 억압과 같은 사회내 일정 기제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장으로 얘기되기도 하며(Hartman, 1981, 조은, 1995에서 재인용), 사회적 이해관계를 위한 조직단위로서 기능하는 정치적 행위체로 얘기되기도 한다(Barrett and McIntoch, 1982). 가족의 사적 영역화에 대한 반대 담론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공적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하고 그것을 유포시키는 것은 특정의 가족 이데올로기²⁾를 확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사적 이미지”와 함께 현대 가족을 규정짓는 중요한 담론은 가족에는 사랑, 공감, 애정과 같은 “심성”이 가족관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Shorter(1975)는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가족에 대한 심성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가족은 배우자 선택에서 자기실현의 중요성, 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우월성의 확보와 이로 인한 모의 자녀들에 대한 애착 등 사랑, 친밀성과 같은 심성이 가정의 “안식처”로 가족내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가족은 Shorter가 묘사하는 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사생활을 지키고 보호받아야 하는 귀중한 정서적 단위”로서 그 심성적 실재를 드러낸다(Gubrium and Holstein, 1990).

- 2) 가족이데올로기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전형적 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것, 가족내 성별분업에 대한 관념, 가족은 평등하다는 관념, 가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좋은 가족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는 관념, 이혼율의 증가는 사회의 위기라는 관념, 가족은 현실세계의 도피처라는 관념, 문제가족은 빈곤가족이라는 관념, 노동과 가족은 분리되었다는 즉, 공사분리의 관념, 개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상호작용하는 한가지의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관념 등을 포함한다.

현대의 가족 담론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을 고정된 실체 즉, 전형적 가족(the family)과 움직이는 실체로서의 가족 즉, 다양한 가족(families)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전형적 가족은 가족을 사회적, 도덕적으로 자연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재생산하는데, 이는 가족의 특성 중 어떤 것은 신성시되고 어떤 것은 비난받게 만듦으로써 ‘자연적인 가족’을 공고화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가족을 불가피한 것, 자연적인 것,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Barret and McIntoch, 1982). 이러한 전형적 가족 담론은 가족을 사회조직의 하부단위로 인식하게 하여 사회에 수직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가족이 갖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간과하게 한다(윤홍식, 2004). 또한 전형적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통제 즉, 규범적 통제, 해석적 통제, 공식적 통제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로 작동된다. 여기서 규범적 통제는 특정 가족을 자연적, 보편적, 이상적, 도덕적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것이 다양한 세팅 즉, 인간 서비스, 행정, 기업 등에 주입되고 이용된다. 해석적 통제는 가족 이미지를 “일탈과 정상”, “질병과 건강”, “노동과 비노동” 등의 해석을 가함으로써 가족을 통제하게 된다. 공식적 통제는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식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가족이미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가하는 통제를 의미한다(최연실, 1997: 270-279).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으로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Patton, 1990; 유태균, 2001),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조사는 사회복지사의 “가족” 담론을 연구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족과 관련한 실천개입을 직접 경험한 1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가정복지센터, 병원 등을 연구참여자의 표집의 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본 기준은 해당 사회복지사가 문제의 사안에 대해 가족전체라는 시각(orientation to family whole)을 갖고 접근하는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후보로 지명된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모교육이나 가족치료, 가족상담은 물론 사안에 대해 가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기준은 가족관련 실천의 경력이었다. 자신이 가족전체라는 시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을 해온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은 되어야 가족실천가로서의 경험을 풍부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는 가족복지팀장이나 팀원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었던 사람을 인터뷰하였고(7명), 가족복지 접근을 위주로 하는 가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1명), 그리고 의료와 정신의료 소속의

사회복지사(2명) 등 총 10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1명이고 30대가 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경력은 5년 이하가 3명, 6-8년이 5명, 9년 1명, 10년 1명이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별분포는 남성 사회복지사 1명, 여성 사회복지사 9명이었다.

2) 심층인터뷰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질적 조사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이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대상자별로 1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먼저 3가지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 각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면접지침을 가지고 심층면접에 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면접지침의 영역은 가족에 대한 이미지, 가족을 원조할 때 중요시하는 원칙이나 관점, 가족실천시 딜레마 등이었다. 이들 3개 영역의 세부적인 인터뷰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클라이언트가족에 대한 이미지, 바람직한 가족상, 가족해체, 가족의 사회적 역할, 가족실천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나 관점, 접근방법, 가족실천시 경험했던 딜레마, 가족실천시 모호부의 활용에 대한 것이었다.

3)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10 사례에 대한 사례내 분석을 실시하고 이어 이들 10 사례를 관통하는 사례간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들을 발견해 나가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사례내 분석에서 각 10사례의 인터뷰 내용을 의미단위(meaning unit)를 확인하고 범주로 묶었으며, 이렇게 묶여진 범주들을 10개 사례를 관통하여 범주를 새롭게 분류하였다. 새롭게 분류된 범주들은 범주간 비교와 대조를 통해 범주간 관계를 발견해 가면서 주제와 하위주제를 찾아내었다. 특히, 의미단위를 찾아 명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초점, 연구문제,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하였고,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자료에서 범주를 찾아내고 범주와 범주간의 관계를 발견해 내는데 있어 본 연구자가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코딩 과정에서 새로운 범주나 주제 등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자료의 처음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한 코딩 작업이 새로운 범주나 주제에 맞게 코딩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인데(유태균, 2001), 범주 발견과 관계 파악에 매우 유용하였다. 이외에도 범주 발견과 범주간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속성과 차원”의 개념, “질문하기” 기법,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질문하기 기법은 발견된 특정 개념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개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신경림, 2001).

자료에 익숙해지기 위해 전체 자료를 한번 통독하였고, 이어 자료를 2번 더 읽으면서 각각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한 코딩 결과 처음에는 41개의 범주, 두 번째 코딩에서는 38개의 범주가 발견되었고, 이들 범주간 관계를 분석하여 최종 4개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는 주요 주제만을 제시하는 경우와 이론이나 가설을 제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Tutty, Rothery, and Grinnell, 1996),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가족”에 대한 담론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타당성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 분석 및 해석의 신빙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읽게 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된 조사 결과를 5명의 연구참여자에게 검토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한 평가 내용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담론이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것들이 기술상 정확하게 잘 표현되었는지 여부, 이런 연구가 현장에서 유용성을 갖는지의 여부 등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큰 무리가 없음을 얘기했고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이외에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전 코딩 과정을 통해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한국의 가족에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사회변동으로 인해 전통, 근대, 탈근대적 가족관념이 공존하고 있다. 장경섭(2001)에 의하면, 한국 가족에는 전통적 가족규범인 유교적 가족이념, 물질적 생존과 적응의 기제로 작용하는 도구적 가족이념, 가족의 애정성을 강조하는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가족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으로 구분하면서 한국가족은 이들 가족이념이 혼재되어 공존한다. 본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담론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드러났는데, 이들 결과는 장경섭(2001)의 지적과 같이 다소 다양한 가족관념과 담론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안식처와 피난처의 의미를 가진 사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성별분업에 대해서는 의식과 실천에서 다소 양가적이었으며, 전형적 가족 이미지는 절반의 모양을 띠었고, 가족유대의 본질은 자연적 제도와 정서적 유대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전체적으로 강력한 근대적 가족담론인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적 이미지에 부수되는 가정중심성이나 모성신화, 전형성, 성별분업 등에서 혼재와 공존의 양상을 띠었다. 사회복지사들의 4가지 가족담론 주제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적 공간: 안식처와 피난처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무엇으로 인식하며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다분히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공간의 성격은 외부 사회로부터 편안함과 애정, 보호를 느낄 수 있는 “안식처”와 “피난처”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10명중 9명이 가족을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들의 가족 이미지는 그야말로 외부세계를 삭막한 세계로 전제하고 가족은 그 삭막한 세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보호막이자 보루로서 그리고 삭막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었다. “가족들끼리 좋은 경험, 즐거운 경험들을 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아닌가요?”, “가족에 대한 생각은 보금자리라고 해야 하나요 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에게 포근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또한 가족을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그 공간 내부는 사회에서 맞볼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족은 따뜻함, 돌봄, 보호,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과 사랑과 애정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이나 변화에도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기 때문에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편안함과 따뜻함은 중국에 자신이 차가운 외부세계로부터 안식할 곳, 피난할 곳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오리가족이 떠오르는 데요. 엄마하고 자녀들이 같이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평화롭고 안식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는 곳”,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포근한 곳이 아닐까요?”. 안식처와 피난처로서의 가족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리라고 이미지화하는 핵심 내용은 “편안함”과 “보호”였다. “어떤 상황이 된다해도 기댈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우리 가족이라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가족의 핵심은 보호에 있다고 봐요.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호까지 합쳐서...”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편안하고 사랑과 애정이 깃든 내밀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실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라는 근대 가족담론의 주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사태를 바라보고 사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이미지가 상징적인 가치와 상호의존성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가족내의 친밀관계나 친밀감의 부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처럼 이미지는 사실의 해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최연실, 1997:74-75)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실천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 이미지는 실천 상에 여러 가지의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갖는 안식처와 피난처의 가족이미지와는 달리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가족 이미지는 매우 상이하였다.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그 주를 이루면서 이들 가족에 대해 “소외”와 “소통불능”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그것은 제 자신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서

로간에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서로 따로따로 예요”, “뒤통자 너무 안타까운 마음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매서운 닭이 되고 뭐 그래서 더 안스럽죠”.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10명의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3명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해 가족들간의 사랑과 애정, 끈끈한 유대라는 “애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소외되어 있고 도망가고 싶을 거라는 생각인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은 다소 비정상적이지만 끈끈한 결속력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석결과 5명의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움”의 코드를 가장 많이 부여받음과 동시에 “애착”의 코드 또한 가장 많이 부여받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해 이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사들은 자신과 관련한 가족에 대해서는 인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밀한 공간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반면,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해서는 어둡고 음습한 무엇인가 배회하되 밝은 빛으로의 전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지화하고 있었다.

2) 성별분업: 의식과 실천의 균열

사회복지사들은 가족내 성별분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성별분업 담론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의식상에서는 성별분업상에 균열을 경험하지만 이를 클라이언트 가족에 적용하는 실천 과정에서는 성별분업 담론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7명). 그러나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있었고(2명) 반대로 성별분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었다(1명). 가족내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가족내 성별분업이 자연스럽고 사회유지에 기능적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내 성별분업은 성역할적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기존의 가부장적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은 이것이 실천과정에 투영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재생산해 내는지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10명의 사회복지사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성별분업에 대해 미묘한 갈등을 느끼면서도 실천과정에서는 성별분업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익숙하고 용이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저도 엄마 아빠가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감정적으로는 고정적으로는 경제적 역할은 아빠에게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엄마가 보호해 줘야 되고 엄마의 역할이라는 생각,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실천현장에서 일할 때는 더 그래요”, “글쎄요 좀 뭐하긴 한데 머리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상 클라이언트에 개입할 때는 다들 그렇게 하니깐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성별분업 경험은 이들에게 모호하게나마 일종의 죄책감과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자신이 하는 실천 행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엄마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든가 “그래도 엄

마가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별분업적 사고가 “엄마를 비난하는(blaming the mother)”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즉, 자신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인식들이 실천에 적용되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가치와 구조를 재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성별분업에 대하여 의식과 실천 상에 간격을 경험하는 대다수 사회복지사들과는 달리 소수의(3명) 사회복지사들은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분업으로 해야 하고 그 양태는 여성은 보호자 역할 남성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돌봄의 역할을 엄마가 담당해 해 준다면 오히려 아버지는 돌봄의 역할보다 경제적 자립의 부분 그 다음에 모델링이 되면 좋지요. 돌봄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이고 경제적 문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족이라고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들의 성별분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산업화 및 근대화로 인해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생겨난 것으로서 남성과 여성간의 타고난 기질과 본성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성별에 따라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이라는 적절한 위치(proper place)가 있다는 가정과 함께 성립한 것이다(Higommet, 1993, 조주은, 2004: 66에서 재인용). 이들 사회복지사들은 회의나 갈등 없이 가족실천 과정에서 성별분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근대 가족담론의 한 부분인 성별분업 담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고 이를 실천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별분업 담론은 자연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모성에 대한 신비화로 이어지기 쉽다. 모성에 대한 신비화는 모와 자녀의 유대적 관계가 강조되면서 어머니다움의 본질로서 애정적 보살핌, 자기희생, 정서적 지원의 근원,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실제로 한 사회복지사는 “저는 엄마를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담아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배가 빠지든 뭐가 빠지든 다 포용해 주거든요. 저는 그게 엄마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데요”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포용해 주고 너그럽고 보호해 주는 것은 여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화된 모성 관념은 가족실천 과정에서 반영되어 나타났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수용력이 높으시거든요. 제가 만날 때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가장 수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엄마예요. 저는 엄마는 일단 돌봄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모성에 대한 신비화는 가족에 대한 신비화를 더욱 더 강화시킨다. 가족생활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 가족에는 사랑과 휴식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가족에 대한 지나친 특권부여와 기대는 가족 신비화의 대표적 예이다.

3) 전형적 가족: 절반의 전형성

“전형적 가족”(the family)은 특정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고 기능적이라는 이미지를 말하는데, 여

기서 말하는 “특정한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성과 관련된 구조적 전형성,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 기능적 전형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조적 전형성은 가족이란 흔히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 있는 양부모 가족이어야 함을 지칭하고, 기능적 전형성은 가족내 기능이 성별분업과 이에 부수되는 제반 가족 기능이 이루어지는 가족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다는 신념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들은 전형적 가족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절반의 전형적 가족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경험상 가족이 반드시 남편과 아내, 모와 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뒤편 아버지 어머니가 꼭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부모님과 애들끼리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가 주요한 거 같아요”, “부모가 둘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더 문제가 심각할 때가 많아요. 부모와 자녀끼리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요, 클라이언트 가족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가 더 가족끼리 화목해요.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일단 부모로 구성될 수 없는 해체가 일어나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분리가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돼요”, “건강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요”, “해체는 요 일단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또한 내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해체가 꼭 부정적이라고는 생각 안해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전형성의 해체에 대해 명확하고 혼쾌하게 전형적 가족의 이미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가족간 관계를 회복하여 양부모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건대 양부모가족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한 해체를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이혼을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건강하게 이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가족이 바람직하기로는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것을. 가족을 분리할 수 밖에요”.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전형적 가족 이념을 전적으로 고수하고 이를 실천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시 해체와 유지 사이에서 심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폭력행사를 하는 가족이 있는데요. 저는 이 가족을 분리시켜야 하나 유지시켜야 하나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제 고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잘 모르겠어요”, “워커의 판단으로는 분리되는 게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러한 딜레마 경험은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아직은 사회복지사들이 구조적 측면에서조차 전형적 가족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모든 사회복지사에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사 중에는 (2명) 구조적 측면에서의 전형적 가족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저는 부모가 일단 다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부모라고 한다면 한부모가 양쪽 부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

은 10명중 한 명이 나올까 말까로 보고 진짜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원만한 가족은 부모가 다 있어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전형적 가족 이미지 외에 기능적 측면에서의 전형적 가족 이미지는 이미 전술한 “성별분업”에서 언급되었듯이, 의식과 실천 사이에 간극이 있고 균열을 보이되 어느 정도 성별분업 담론을 수용하고 있었다. 전형적 가족(the family)은 형태와 기능에 있어 항상 유사하고 확고하며 불변하는 실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가족에는 “애정적 보살핌”, “사랑”, “모성의 중요성”,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존재”가 상징되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가족은 정상에서 이탈로, 자연적인 것에서 이상한 것으로 전락되면서 사회적 낙인은 물론 정책적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다(권오주 외, 1991).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을 원조하는데 있어 원조의 대상인 클라이언트 가족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전형적 가족 이미지를 통해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가족실천의 접근 방향과 실제적인 원조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 가족을 거부하면서 가족은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구성, 해체되고 변모해 가는 다양성을 가진 존재(families)로 인식하는 사회구성주의 시각의 도입이 가족실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4) 유대의 본질: 자연적 제도와 정서적 유대

가족담론의 내용 중의 하나는 가족을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있다. 이는 가족적 유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과 상통한다. 즉, 가족을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진 심성적 존재로 보는가,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보는가, 사회적 계약으로 보는가 아니면 사회적 이해관계를 재생산하는 정치적 행위체로 보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Gubrium and Holstein, 1990). 사회복지사가 가족 유대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족 유대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족실천의 방향과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유대의 본질을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진 심성적 존재로 본다면 가족실천가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체적으로 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 기본적인 핵심 단위로 보면서 그 제도의 핵심에는 사랑이나 애정, 돌봄으로 상징되는 정서적 유대가 주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무언가 튼튼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아닌가요”, “우선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양육이나 노인부양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은 제도로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을 사회적 제도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회적 단위는 정치적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이란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앞으로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난다 해도 이것처럼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구성원이라는 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혈연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참 신비해요. 가족들끼리는 편안

해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뿔줄이고 같이 살다보니 그런가 봐요”. 사회복지사들 중에 가족이 자연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사회복지사는 없었다. '자연적인' 가족은 어떤 특성의 것은 신성시되고 비난받게 함으로써 공고화된다. 가족이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자연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불가피한 것, 자연적인 것,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잘라 말한다(Barret and McIntoch, 1982).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대체적으로 가족적 유대의 핵심에 애정, 사랑, 지지와 같은 정서적 유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애정과 사랑, 돌봄을 강조하였다. “가족은요 핵심적 기초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돌봄과 사랑과 애정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보면요 처음에는 너무 나쁘고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가족을 만나다 보면요 끈끈한 애정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가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주고 아껴줄 수 있는”.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적 유대의 본질이 물질적이거나 정치적인데 있다고 보기보다는 정서적인 데 있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의 본질을 자연적 제도이자 정서적 유대에 있다고 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가족에 대한 사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가족과 사회의 공사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성을 가족만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다. 물론 가족은 친밀성과 공유성, 보호의 진정한 단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가 가족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바깥 세계는 차고 냉담한 것으로 만들었고 친족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관계와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심화시킬 수 있다(Barret and McIntoch, 1982).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적 유대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바탕한 실천은 사회적으로 특성의 이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실천이라는 것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실천의 본질이라면 사회복지사들은 지식과 기술을 한껏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실천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실천 행위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러한 생각을 안내해 주는 문헌을 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실천이란 추상적인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적 작업”(Bems, 1999)이라는 통찰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석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한 축으로서 “담론적 실천”에 주목하게 되었고, 평상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가족”실천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특성의 가족 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담론은 실천과정에 반영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 연구의 결론과 그에 대한 논의는 3가지이다.

첫째, 가족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가족담론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담론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가족을 사적인 영역이자 신성불가침하고 영원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과 그로 인한 가정중심성이 바람직한 삶의 전형이라고 여기는 일반인들의 인식(조주은, 2004)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다른 가족을 만나면서 이들을 돕는 전문가는 적어도 자신이 가진 인식과 그 인식의 배경이 되는 담론적 성향과 위치를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가진 가족에 대한 담론적 성향과 그 의미를 얼마나 조망하고 성찰하는지는 미지수다. 가족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의 비전형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형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대학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가족담론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정의내리고 가족실천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전문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양자간 관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가진 가족담론이 가족실천 과정에 반영된다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계만을 고집할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클라이언트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와 사회복지사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양자가 서 있는 실천환경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가족담론에 몰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진 가족담론의 영향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전통적인 전문적 관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수하기보다 양자의 가치가 부딪치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기결정의 과정으로 재정의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을 해석적 실천, 담론적 실천으로 이해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규정짓는 전통적 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가족실천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복지사의 가족담론은 사회적으로 특정의 상징적 질서를 유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실천 행위가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가족담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천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기존의 성별분업적,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 사적 이미지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재생산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존재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수용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실천행위도 분명 정치적 행위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가 중립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라면 특정의 가족담론을 가지고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에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내는 존재이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가 아무리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 하락과 이혼율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가족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가족”이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이면에는 사

회의 튼튼한 기반이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가족에 대한 견고한 이미지에 일대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가족은 “안식처”로보다는 깨지기 쉬운 유리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적 영역인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아젠다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이는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가는데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제 가족은 이전보다 더 치료와 교육과 재활의 대상이 되어갈 것이다. 그러한 만큼 가족개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분주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전문가의 실천 행위가 정치적 실천이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지원의 틀을 방향지우고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 아울러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Harding(1996)은 국가가 실제적인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나, 아니면 낭만적인 가족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병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적인 가족을 치료, 원조하는데 주력하였으나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20세기 복지국가의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을 갈파하였다. 실천현장에서의 가족실천 행위에 내포된 이념적 함의들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장명구·박상훈. 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한국사회학. 31(1): 123-160.
- 권오주 외 역. 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해광. 1999. 경영담론의 특성과 노동자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유태균.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 조은. 1995. “서구 가족사회학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가족과 성의 사회학. 서울: 사회비평사. pp. 17-57.
-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서울: 퍼스웬.
- Barrett, M, and M. McIntoch. 1982. *The Anti-Social Family*. London : NLB. 김혜경(역).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1994. 서울: 여성사.
- Benjamin, O. 1998. “Therapeutic discourse, power and change: Emotion and negotiation in marital conversation.” *Sociology* 32(4): 77-98.
- Berns, N. S. 1999. *Domestic Violence in the Popular Discourse: Victim-Centered Problem*.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Bryman, A, and R. G. Burgess. 1994. *Analyzing Qualitative Dat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ambon, Irving, and Epstein. 1999. *Reading Foucault for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ldstein, H. 1990. “The knowledge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 Theory, wisdom, analogue, or art?” *Families in Society* 71: 32-43.
- Greene, G, J., C. Jensen, and D. H. Jones. 1996. “A constructive perspective on clinical social work

- practice with ethnically diverse clients." *Social Work* 41(2): 172-180.
- Gubrium, J. F, and J. A. Holstein. 1990. What is Family?. 최연실 외(역). 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Harding, L. F. 1996. *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 Hare-Mustin, Rachel. T. 1994. "Discourses in the mirrored room: A postmodern analysis of therapy." *Family Process* 33(1): 19-35.
- Heineman, M. 1981.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55: 371-397.
- Imre, R. 1982. *Knowing and caring: Philosophical issues in social work*.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eonard, P. 1994. "Knowledge/power and postmodernism." *Canadian Social Work Review* 11(1): 11-26.
- McWilliam, R. A., L. Tocci, and G. Harbin. 1998. "Family-centered services: Service providers' discourse and behavior."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4): 206-232.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
- Pozatek, E. 1994. "The problem of certainty: Clinical social work in postmodern era." *Social Work* 39(4): 396-403.
- Ruef, M. 1998. *The Rise of Managed Health Care: An Inquiry into the Evolution of Discourse, Ideology, and Power*.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Saleebey, D. 1979. "The tension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 Assumptions of the experimental paradigm."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7: 267-284.
- Saleebey, D. 1994. "Culture, theory, and narrative: The intersection of meanings in practice." *Social Work* 39(4): 23-41.
- Scott, Dorothy. 1989. "Meaning construct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63(1): 489-494.
- Tutty, L. M, M. A. Rothery, and R. M. Grimmell. 1996. *Qualitative Research for Social Workers*. Allyn and Bacon: A Division of Simon and Schuster.
- Yan, N. C. 1998. "Social functioning discourse in a Chinese context: Developing social work in mainland China." *International Social Work* 41: 181-195.
- Zaretsky, E. 1986.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Perennial Library.
- Zastrow, C. 1992. *The practice of social work*(4th ed.). California: Wadsworth Inc.

A Study on the Family Discourses in Social Workers

Kim, In-So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s about family discourses of social worker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suggestions of relatedness between discourse and practice by grasping the contents and meaning of discourses in social workers. 10 social workers in various field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social workers understand family as a private space which have a meaning of shelter and refuge. Second, there are gaps between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division of gender role in family. But social workers generally are inclined toward receiving division of gender role in family and applied to their family practice. Third, monolithic family image have a tendency of versatility in family structure, is inclined toward the division of gender role and myth of motherhood. Fourth, social workers perceived emotional tie as important nature of family solidarity and family as natural institution. Also these discourses of social workers were applied to their family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possibility that social work practice can be discursive practice or interpretive practice.

Key words: Family, Family Discourse, Family Practice, Social Work Practice

[접수일 2004. 1. 17 게재확정일 2004. 4.1]